

“신창동 유적, 문화콘텐츠로 활용해야”

광전연 주장, 마한시대 소재 영화·드라마 제작...체험형 선사문화관 등 건립을

광주·전남이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을 중심으로 한 마한문화자원에 대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자원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지역 이야기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민인철 책임연구위원과 노시훈 전남대 교수는 ‘광전리더스 인

포’ 제11호 ‘지역의 유무형 문화콘텐츠 소재를 활용한 이야기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지금까지 광주 문화자원의 활용은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자원과, 양림동,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문화자원에 집중되고 신창동을 중심으로 한 선사능경 문화자원 등의 마한문화자원은 활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광주 신창동 유적, 나주반남 고분군 등 영상강유역권 마한문화가 신선한 만화 소재나 영화·애니메이션·TV드라마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출토 유물과 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재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지역문화자원을 체험하고 그 콘텐츠를 즐기도록 집적형 종합

문화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창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전시 및 선사시대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체험형 선사문화관을 신창동 유적지에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또 지역 이야기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으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리소스센터’ 설립 ▲지역 이야기 소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컨텐트타워 구성 ▲콘텐츠 제작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산학 연계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이원근씨 김성원씨 조현중씨 박남희씨 김희정씨

문화전당 5개월 본부장급 인선 마무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개월의 운영을 맡을 핵심 인선작업이 마무리됐다. 아시아문화원(원장 김병석)은 “창·제작센터장에 이원근 전 단국대 예술대학교 교수, 전시사업본부장에 김성원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원근 창·제작센터장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문화전당 문화콘텐츠창조센터 운영조직화 사업, 복합전시관 운영방안설계연구 등 사업에 참여했다. 김성원 전시사업본부장은 파리 제1대학교와 파리1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문화역 서울 284 예술감독, 제2회 안양공공미

슬프로드트 예술감독을 지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아시아문화연구원 소장에 조현중 전 국립광주박물관장, 교육사업본부장에 박남희 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감독, 지난 3월 공연사업본부장에 김희정 상명대 음악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공식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및 콘텐츠 창작·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윤영기자 penfoot@

외식 물가 2% ‘경충’

소주 12.5%·김밥 5.2% ↑

올해 2분기(4~6월) 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지만 외식물가 상승률은 2% 중반을 기록했다. 특히 소주와 김밥 등 서민들이 즐겨찾는 외식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외식품목 38개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것은 외식 소주값으로 1년 전보다 12.5% 뛰었다.

소주값은 1분기(1~3월)에도 10.7%나 뛰어 전체 외식품목 중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서 2분기 연속 외식 품목 물가 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다. 외식 소주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지난해 말 주류업체들이 잇따라 소주값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품목은 김밥으로 전년 동기보다 5.2% 올랐다. 외식 쇠고기값, 외식 생선회는 각각 4.8%씩 올라 나란히 3위를 차지했다.

김밥 외에도 간단하고 저렴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외식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외식 라면값은 3.6% 올라 물가 상승 품목 상위 8번째 자리에 올랐고 짬뽕(3.5%), 자장면(3.4%), 떡볶이(3.4%) 등도 차례로 9~11위를 차지했다.

불고기(3.9%), 갈비탕(3.8%) 등 축산물이 주재료로 들어간 품목의 가격 상승 폭도 컸다.

1년 전보다 가격이 내려간 것은 학교급식비(-2.2%), 국산차(-0.1%) 등 2개 품목 뿐이었다. 0%대 상승 폭을 보인 것은 스킨케터(0.7%), 치킨(0.3%)을 비롯해 6개 품목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분기 전체 물가 상승률은 0.9%였는데도 외식물가는 2.5% 상승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2014년 4분기(10~12월) 이후 7분기 연속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불경기엔 외식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지기도 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합뉴스



광주자동차 애프터마켓협회 발대식 4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에서 열린 광주자동차 애프터마켓 협회 발대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김동철 국회의원, 김명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총장,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석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과 협회 유진영 회장 등이 현판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고독사 위험군 2701명 1 대 1로 돌본다

고독사지킴이 운영...노인 3명 중 1명 ‘나홀로’ 전국평균 상회

전남도내 노인 3명 가운데 1명은 독거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평균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다. 전남 독거노인 100명 가운데 1.5명 이상이 고독사 위험이 높아 전남도가 예방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4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수 조사 결과 전남의 1인 가구는 23만2000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독거노인이 12만20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2만2087명 가운데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8만1846명(67.0%)로, 집에 거주하면서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은 4만611명(37.7%)이었다. 병원 치료 등에

의한 주민등록지 미거주가 1만5094명(12.4%), 시설 입소자 7129명(5.8%), 공동생활자 1393명(1.1%) 등의 순이었다.

2015년 말 현재 전국 노인 678만명 가운데 독거노인은 138만명으로 20.3%였지만, 전남도는 노인 39만명 가운데 31.2%인 12만2000명이 혼자 살고 있었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는 23만2869세대로, 전체(83만3901세대)의 27.9%에 달했다. 인구(193만9562명)의 12% 비중을 보였다.

전남도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65세 미만 중장년층 1인 가구(7만3868세대)와 65세 이상 1인 가구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사 위험군

2514명, 고위험군 187명 등 2701명을 발굴했다. 위험군은 질병이나 빈곤에 시달리거나 단전·단수·단기, 보행불능, 체력 저하 등이며, 고위험군은 2~3가지 유형의 복합 대상자를 말한다. 2701명 가운데 독거노인은 1921명, 중장년층은 780명이었다.

이들을 위해 전남도는 도내 자원봉사자 2701명을 ‘고독사지킴이’로 지정하고 1대 1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종교단체나 복지시설과의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의 독거노인은 3만 9866명으로, 2013년 3만2484명, 2014년 3만6943명 등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16만7610명)의 23.8%로, 노인 4명중 1명꼴로 홀로 사는 셈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전당 10여곳 비 샌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4일 문화전당에 따르면 주말 장맛비의 영향으로 어린이문화원 입구 2곳과 건축 창의 놀이터 3곳, 나만의 악기를 만들어 요 체험관 2곳, 문화창조원 대나무정원 3곳, 기계실 등 10여곳에서 비가 샌다.

문화전당 직원들은 양동이를 곳곳에 배치해 천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냈다. 문화전당 누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개관 이후 올 봄부터 누수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화전당측은 주말인 3일 69mm가 내리 등 주말에만 180mm가 내려 이번이 최고 작은 누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당 공사를 맡았던 D건설은 개관 이후에도 AS센터를 전당 내에 두고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건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비가 새는지를 파악해 보수 공사를 진행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부, 국가브랜드 ‘창의 한국’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브랜드를 ‘CREATIVE KOREA’(창의의 한국)로 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CREATIVE KOREA’는 우리나라 국민의 DNA에 내재된 ‘창의’의 가치를 재발견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국가브랜드 로고는 태극기를 모티브로 제작됐는데, ‘CREATIVE’와 ‘KO-

REA’를 상하로 두고 건곤감리의 두 개의 세로선을 양 끝에 배치했다. 색상은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짙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사용했다. 로고 ‘CREATIVE’의 ‘i’는 영어 소문자 ‘i’가 아니라 한글 천지인의 인을 의미한다.

앞으로 ‘Dynamic Korea’ 대신 ‘CREATIVE KOREA’가 공식 국가브랜드로 사용되고, 기존 관광 브랜드인 ‘이미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도 새 국가브랜드로 대체된다. /연합뉴스

사람찾음

성명: 박영욱(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울 재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인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혀 윤의하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언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대가 18억원
- 북구 동림동 동림지구 맞은편 큰도로변 3층근린주택 대지 207평 건물 385평 ▶ 최저 거대가 10억원
- 광양시 광양읍 주공후문 코너 건물 109평 토지 155평 음식점 및 사무실추천 ▶ 감정이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이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정가에56%)
- 담양군 대덕면 2층전원주택 건물 56평 토지 262평 주변환경양호 건물상태최상 ▶ 감정이 2억 최저가 2억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입가능 창고상태양호 ▶ 감정이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 66평 토지 47평 ▶ 감정이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서구 쌍촌동 2층단독주택 건물 62평 토지 55평 위치좋은 한국병원인근 ▶ 감정이 1억5천 최저가 1억1천만원
- 광산구 신촌동 4차선 도로변 점포 전시장 및 대리점점함 토지127평 건물120평 투자적합 ▶ 최저가 3억3천2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이사

010-7147-4989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